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에 關한 相關研究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大學院生 田 吉 良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副 教 授 金 兌 玄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Kil Yang**

Associate Prof.; **Tae Hyun Kim**

< 목 차 >

I. 緒 論

II. 理論的 背景

III. 研究 方法

IV. 結果 및 解釋

V. 結果 및 提言

參考文獻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spouse's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A measurement tools used for this study are self-disclosure scale, which was adapted and reproduced from Jourard's Self-Disclosure Questionnaire (JSDQ), and marital adjustment scale, which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from Dyadic Adjustment Scale (D.A. S.) developed by Spanier. The subjects were 154 married couples dwelling in Seoul and questionnaires are recorded separately by both spouse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one 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For husband, self-disclosure degre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That is, the more husband was higher level of education, the more husband tended to disclose to wife.

2) Among th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the marital adjustment, level of education and marriage pattern had influence on wife's martial adjustment and family income and marriage pattern had influence on husbands' marital adjustment.

3) Wives were higher disclosers than husbands and wives were more disclosed than

perceived husbands' disclosure.

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disclosure of husbands and the marital adjustment of wives. ($r=.3872, p<.005$) A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disclosure of wives and the marital adjustment of husbands. ($r=.4997, p<.005$)

5) For wives, the perception of husbands' disclosure correlates with wives' marital adjustment. ($r=.4592, p<.005$) For husbands, the perception of wives' disclosure correlates with husbands' marital adjustment. ($r=.5610, p<.005$)

From this results, full and honest self-disclosure is needed for high marital adjustment of a married couple. In the futur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is need to various measure of many subject.

I. 緒 論

1. 問題의 提起

家族은 하나의 組織으로서 社會變遷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지속되어온 기초적인 社會制度라 할 수 있다. 오늘날 社會의 급속한 변화는 家族의 形態나 機能面에 많은 변모를 가져왔으며, 특히 夫婦相互間의 愛情과 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夫婦關係가 家族이나 結婚의 安定性を 유지하는 절대적 要素로서 매우 중요시 되었다.

夫婦間의 相互作用은 結婚生活 및 家族生活의 여러가지 요구에 잘 適應할 수 있는 능력과 夫婦相互間의 親密感을 형성하는 정도에 關係되는데, 이러한 夫婦間의 相互作用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발달할 수 있다. 그런데 自身の 感情이나 견해, 느낌등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表出하는 “自己開放”은 의사소통에서 빠뜨릴 수 없는 要素이며, 信賴와 親密感은 夫婦相互間의 自己를 나타내므로써 발달되기 때문에 自己開放은 夫婦相互作用에서 필수요건이라 하겠다.

우리의 文化는 表現을 억제하고 感情을 누르며 露出을 금기시하여 서구의 表現文化와는 달리 夫婦間에서도 서로간의 感情을 나타내기 보다 억제와 절제를 美德으로 삼았으며, 言語的인 表出보다는 非言語的인 행동과 夫婦相互間의 기대치를 매우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傳統的 倫理觀에서

기인하는 “솔직한 自己表現의 결여”는 精神健康에 좋지않을 뿐만 아니라 自己의 不滿이나 異見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여 社會生活에 있어 不適應의 行動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차재호, 1984). 특히 現代社會가 산업화 기계화되어감에 따라 自我喪失이나 疎外意識, 對人關係의 단절등의 問題가 크게 부각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問題들은 자칫 對話의 결핍으로 夫婦間의 葛藤이나 不滿을 누적시켜 家族의 安定과 幸福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夫婦相互間의 솔직하고 충분한 自己開放은 夫婦間의 원활한 意思疏通에 도움을 주어 현대 家庭生活의 핵심이 되고있는 夫婦關係를 향상시키고, 만족스러우며 원만한 家庭生活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夫婦間의 意思疏通과 結婚滿足 및 幸福도는 상호 밀접한 相關성을 갖는다고 많은 研究들은 밝히고 있으나 意思疏通에서 가장 중요한 要素인 自己開放과 夫婦間의 適應이나 滿足을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夫婦間의 自己開放 程度와 夫婦適應과의 關係를 研究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서구사회의 表現的 文化에서 매우 중시되고 있는 自己開放 程度가 우리나라의 夫婦間에서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데 研究의 意義를 두고 이에 關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고자 한다.

2.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夫婦를 서울시에 居住하는 사람으로 意圖의 標集을 하였기 때문에 研究結果를 一般化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本 研究는 自己報告(self-report)에 의해 측정되어 소비된 時間의 量은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셋째, 本 研究는 自己開放에 대한 독립변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自己開放과 독립변인과의 關聯性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으며 이를 제한점으로 밝힌다.

넷째, 本 研究에서는 夫婦相互間의 自己開放과 夫婦適應과의 相關을 보기 위해 言語的인 自己開放만을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文化的 背景은 夫婦間에서 言語로 表現하기 보다 非言語的 行動을 통해서도 夫婦間에 많은 기대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非言語的인 自己開放의 程度를 측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本 研究에서는 言語的인 自己開放 程度만을 측정하였다.

3. 用語의 定義

첫째, 夫婦間의 自己開放은 한쪽의 配偶者가 自身の 생각이나 느낌, 관심사, 감정등의 個人的인 情報를 다른쪽의 配偶者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리는 夫婦相互間의 過程으로 정의한다.

둘째, 配偶者의 開放에 대한 知覺은 남편이나 아내 서로가 상대편 配偶者가 나타내는 自己開放의 程度를 認知하는 것이다.

셋째, 夫婦適應은 夫婦相互間에서 기대되는 행동이나 관심사에 대한 갈등 및 불일치등을 해결하면서 結婚에서 期待되는 行動을 충족시켜 나가는 過程을 말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自己開放

1) 自己開放의 概念

自己開放(Self-Disclosure)이란 用語는 心理學者이며 心理治療家인 S.M. Jourard에 의해서 심리학적인 專門用語로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Komarovsky, 1974). Jourard(1971)는 “自己自身을 다른사람

에게 알도록 해주는 過程”으로 설명하며 다른사람이 알 수 있도록 自身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定義하였다. Cozby(1973)는 自己開放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言語로서 傳達하는 自己自身에 關한 情報”라 하여 言語라는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이승신, 1986).

또한 Derlega와 Chaikin(1976)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自身에 關한 情報를 나타내는 程度에 關係된다”고 하였으며, Goodstein과 Russell(1977)은 “다른 사람에게 自身에 關한 心理學的으로 의미있는 情報를 나타내는 對人的 過程(interpersonal process)”이라고 하여 自己開放은 精神健康에서 빠뜨릴 수 없는 특성으로 생각하였다. Chelune과 동료들(1981), Falk와 Wanger(1985)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自身の 생각이나 필요, 느낌등에 關한 個人的인 情報를 言語的으로 제공하는 意思疏通의 過程”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言語에 의한 情報傳達이라는 定義와는 달리 Shapiro와 동료들(1969)은 “自己開放은 言語로서 뿐만 아니라 非言語的 行動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하였다(배기웅, 1986).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定義들을 종합하여 自己開放의 概念을 “한 個人이 自身の 생각이나 느낌, 관심사, 감정등의 個人的인 情報를 다른사람에게 言語的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리는 過程”으로 定義한다.

2) 先行研究의 考察

自己開放에 關한 研究들은 自己開放이 精神健康과 밀접한 相關성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Solano et al., 1982; Jourard, 1974). 즉, 自身の 感情이나 느낌, 생각등을 다른사람에게 表出하는 自己開放은 意思疏通과 人間關係를 증진시키며 친밀한 人間關係의 適應과 精神健康에 매우 중요한 要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個人이 他人에게 무조건 높은 開放을 한다고 해서 精神的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Chaikin & Derlega, 1974), 무조건 은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不適應된 것으로 知覺되어 친밀한 人間關係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Fishbein & Laird, 1979). 그러므로 個個人의 상황에 맞는 適當한 自己開放이 精神健康에 기여한다고 몇몇 研究들

은 설명하고 있다(Caltabiano et. al., 1983; Rubin, 1985). 또한, 自己開放의 연구들인 對人關係에서 상대방에게 自己開放을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開放을 하도록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相互의으로 된다고 밝히고 있다(Lynn, 1978; Jourard, 1971; Myong Jin Won-Doornink, 1985; Davis, 1976). 따라서 몇몇 研究들은 自己開放의 水準이 높은 사람과 相互作用할 경우 自己開放 水準이 높아진다고 報告하고 있으며(Ehrlich et al., 1971; Mcallister et al., 1984; Ludwig et al. 1986), 상대방의 自己開放의 知覺이 個人으로 하여금 더 많은 自己開放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自己開放의 相互性(reciprocity)은 個人의 開放이 상대방에 대한 信賴感이나 호의적인 感情등을 가져와 自己開放이 유발된다는 社會交換 理論(social exchange theory: Kohen, 1975; Morton, 1978; Franco et al., 1984)과 상대방에 대한 好感이 매개적 역할을 하여 自己開放을 일으킨다는 對人魅力 理論(interpersonal attraction theory: Lynn, 1978; 손정애, 1979; Cash, 1985), 먼저 開放하는 사람이 社會的 狀況에 맞는 적합한 行動을 하도록 어떤 단서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自己開放이 발생된다는 規範的 情報 理論(normative information theory: Kohen, 1975; Ludwig et al., 1986; Miller et al., 1983)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自己開放 研究에서 男女間의 性차는 매우 중요한 變因으로 研究되었는데 그 結果는 상반된 見解가 있다. 즉, 몇몇 研究들(Jourard, 1971; Chelune, 1976; Derlega et al., 1976)은 더 높은 開放을 하는 여성들과 더 낮은 開放을 하는 남성들이 對人關係에서 더 많은 호감을 받으며 더 適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고 있고,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높은 開放을 한다는 性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性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自己開放의 程度는 兒童發達時期부터 여성은 表現의으로, 남성은 과묵하게 期待되는 서로 다른 文化的 期待感을 갖는 성역할의 社會化로 설명될 수 있다(Notarius et. al., 1982; Balswick et al., 1977).

그러나 이와 반대로 Kohen(1975), Banikiotes와 동료들(1981), Solano와 동료들(1982)은 自己開放에 있어 性차가 없다고 報告하였다. Lavin(1984)등과 Rubin등(1980)은 여성과 남성의 전체적인 自己開放에는 어떤 差異도 없었으며, 단지 性役割의 期待에 따라서 남성들은 政治的 見解나 성공·성취등 남성의 役割에 관련된 話題들에서 좀더 自發的이며 여성들은 感情이나 情緒·依存性등에 관계된 話題들에서 自發的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전의 많은 研究는 性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自己開放에 대해 이루어져 왔으나 어느 性이 더 開放한다는 基本的인 問題는 분명히 대답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要因들의 중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즉, Snell과 동료들(1986)은 自己開放 話題들의 性類型화가 男女間의 性차이에 중요한 變因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性이 더 開放하는가는 個人들의 相互作用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들에 비추어서 研究되어져야 할 것이다.

2. 夫婦適應

1) 夫婦適應의 概念

心理學的인 用語의 의미에서 適應은 주어진 環境에 自身을 맞추는 過程과 自己의 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環境을 변화시키는 過程으로 구성된다(김인자, 1985). 즉, 適應이란 自我實現을 이룩함과 아울러 環境을 고려하고 社會期待에 맞춰나가는 過程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適應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夫婦間의 適應이란 夫婦쌍방간의 適應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外的 條件, 즉 經濟的·社會的 環境에 대한 適應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유영주, 1984).

夫婦適應에 대한 최초의 研究試圖는 Hamilton(1929)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그후 Terman(1938) 및 많은 學者들에 의해 研究가 이루어져왔고 또한 測定道具들이 開發되어왔다. 이는 結婚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되는 家族解體에 대한 관심이 結婚의 幸·不幸을 구별짓는 하나의 특성으로 夫婦適應을 研究하는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Fineberg et. al., 1975).

그런데 結婚의 滿足이나 成功·幸福·質 등의 用語에 대한 概念은 학자간에 一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類似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Lewis와 Spanier (1979)는 結婚에 대한 理論化에서 夫婦適應·結婚滿足·結婚幸福이나 갈등 등은 結婚의 質과 밀접히 관련되는 概念이며 포괄하여 '結婚의 質'의 概念을 제시하였고, 또한 Adams(1980)도 夫婦適應·結婚滿足·安定性 등의 用語는 때때로 類似하게 또는 다르게 사용된다고 하면서 분리하여 使用할시 夫婦適應은 夫婦間의 順應(accommdation)과 調節(adaptation)에 관련되는 過程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夫婦適應은 夫婦相互間에 期待되는 行動이나 관심사에 대한 갈등 및 不一致 등을 해결하면서 結婚에서 期待되는 行動을 充足시켜 나가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

2) 夫婦適應과 關聯變因

夫婦適應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으로 研究된 關聯變因은 매우 다양하며, 結果에 있어 一致를 보이지는 않지만 本 研究는 先行研究를 기초로하여 一般적으로 많이 다루어진 變因을 살펴보겠다.

연령과 夫婦適應의 關係研究는 一貫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Lee(1977)는 早期에 結婚한 夫婦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夫婦適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김재석등(1983)과 송말희등(1986)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中年에 이르러서는 結婚生活를 滿足스럽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어 다시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성자(1981), 박태은(1983) 등은 연령에 따라 有意한 差異를 발견하지 못했다.

教育水準과 夫婦適應에 關한 研究들은 대체로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教育水準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夫婦適應을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유영주(1979), 이정우(1985), 최재석(1982) 등의 研究는 夫婦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夫婦適應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教育水準과 夫婦適應과의 正的 相關關係를 밝히고 있다.

收入과 夫婦適應에 관한 몇몇 研究(최재석, 1982; 송말희등, 1986; 오명숙, 1978)는 收入이 높아질수록 夫婦適應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

영주(1979)도 家庭의 收入차체가 夫婦間의 滿足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어느 정도의 經濟的인 安定은 夫婦適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結婚과 같은 상황에서 經濟的 보상은 夫婦相互間의 滿足을 위한 可能性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비중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期待水準에 상응해서 滿足도가 나타날 수 있다(김혜선, 1982). 그러므로 收入과 夫婦適應과의 關係는 仲介變因으로서 主觀的인 평가를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愛情과 性要因은 결혼생활에서 夫婦相互間의 滿足과 幸福을 이끄는 중요한 要因으로 研究되어 왔다. Rhyne(1981)과 Campbell등(1976)은 愛情과 性, 사랑과 同僚意識등이 滿足할수록 전체적 夫婦適應이 증가한다고 報告하였으며, 유은희(1974)도 性生活의 不適應은 夫婦適應에 방해를 주었으며 夫婦間에 愛情表示가 충분할수록 夫婦適應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夫婦關係에서 意思傳達의 중요성은 많은 研究에서 밝혀왔다. 김재석등(1983)은 婦人의 滿足도에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收入이 많아짐에 따라 夫婦間에 非言語的 意思疏通이 잘 되었고 夫婦 모두 말을 잘할수록 滿足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권정임(1981)은 학력이 높을수록 對話의 내용에 滿足하고 對話의 중요성에 긍정적인 反應을 보이며 結婚生活에 더 滿足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家族形態나 아내의 就業有無, 子女數등 많은 요인들이 夫婦適應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으로 研究되었다.

3. 自己開放과 夫婦適應

自己開放에 關한 研究는 두사람 사이에서 發達되는 현상으로 자주 研究되어 왔으나 대다수의 연구는 서로 親密하지 않은 사람들을 對象으로 이루어져왔고, 의미있는 關係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研究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Davidson등(1983b)은 結婚關係에서 對話의 단절이 자주 갈등적인 상황으로 놓이게 한다는 結果는 매우 흔하게 報告된 것인데, 이러한 意思疏通에서 自己開放은 매우 중요한 變因이라고 밝혔다. Jourard와 Lasakow(1958)도 그

들의 선구적 研究에서 結婚한 사람들은 다른사람 보다도 配偶者에게 더 開放하며, 가장 一致하고 친밀한 開放은 結婚關係에서 일어난다고 밝혔다(Jourard, 1971). 이러한 結果에 비추어볼 때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사이의 關係가 비교적 探究되지 않은채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의 關係를 살펴본 몇몇 研究들을 보면, Komarovsky(1969 : Hendrick, 1981에서 재인용) 및 Jorgensen과 Gaud(1980)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開放을 하였으며 自己開放이 夫婦適應에 肯定的으로 關係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Levinger와 Senn(1967)도 言語의 感情의 開放에서, 기쁜 感情의 開放이 불쾌한 感情의 開放보다 夫婦適應에 높게 相關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아내는 남편보다 더 많은 開放을 하고 夫婦間的 開放에는 相互性의 傾向이 있었다고 밝혔다(Davidson et al., 1983 b). 한편, Hendrik(1981)은 아내의 自己開放의 量이 남편의 夫婦適應에 關係되었고, 남편의 自己開放의 量은 아내의 夫婦適應에 의미있게 相關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自己開放의 程度는 夫婦相互間的 適應을 예견하는 중요한 變因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의 研究는 夫婦들이 結婚關係에서 보상이 댓가보다 중요하게 나타났을 때 가장 滿足스러운 關係로 생각할 것이라는 社會交換理論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Davidson등(1983a) 및 Hansen등(1984)은 夫婦들이 公평성(equity)을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各各의 配偶者로부터 自己開放을 받았다고 知覺할수록 夫婦適應度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즉, 自己開放은 보상되어지는 것으로 知覺되기 때문에 夫婦間的 自己開放의 量이 많고 적은 程度에서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라 夫婦相互間的 不一致를 知覺하는 程度에서 夫婦適應에 關係되어 있으며, 그 不一致는 夫婦適應과 負의 相關을 갖는다고 報告하였다.

이상과 같이 報告된 研究들은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이 公正적으로 相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變因으로 제시하고 있다. “結婚關係의 最 적조건은 夫婦들이 마음에 숨김없이 그 自身을 서로에게 開放하는 關係에 있다”고 한 Jourard(1971, p.

46)의 말과 같이 夫婦間에 있어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을 研究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III. 研究方法

1. 研究問題의 設定

本 研究은 夫婦를 대상으로 하여 一般의 特性에 따라 自己開放 程度나 夫婦適應에 差異가 있는지를 說明하며 研究目的에서 밝힌 바와 같이 夫婦相互間的 自己開放이나 配偶者의 開放에 대한 知覺의 程度가 夫婦適應에 어떤 關係를 갖고있고 또한 夫婦間에 差異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本 研究의 問題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研究問題를 設定하였다.

[研究問題 1] 自己開放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2] 夫婦適應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3] 남편과 아내는 다음 變因에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3-1) 남편과 아내는 自己開放程度에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3-2) 남편과 아내는 配偶者 開放에 대한 知覺의 程度에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3-3) 남편과 아내는 自己開放과 配偶者 開放에 대한 知覺間的 不一致 程度에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4] 남편과 아내의 自己開放과 夫婦適應間에는 關係가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4-1) 남편의 自己開放은 아내의 夫婦適應에 相關이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4-2) 아내의 自己開放은 남편의 夫婦適應에 相關이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5] 남편과 아내는 配偶者 開放에 대한 知覺과 夫婦適應間에 相關이 있을 것이다.

2. 測定道具

本 研究을 위한 質問紙는 조사대상자의 一般의 性格을 파악하기 위한 問項과 夫婦相互間的 自己開放

및 配偶者의 開放에 대한 知覺을 측정하기 위한 問項, 夫婦適應의 측정을 위한 問項으로 구성되었다.

1) 自己開放

自己開放의 測定은 S.M. Jourard(1971)의 自己開放 質問紙(J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naire: JSDQ)를 번역하여 修正後 사용하였다. JSDQ는 태도와 의견, 기호와 관심, 일[本 研究에서는 가정(또는 직업) 생활 領域으로 修正하여 사용됨], 금전, 성격, 신체 등 6個의 下位尺度로 構成되어 있고 各各의 下位尺度에는 10個씩의 項目들이 포함되어 총 60問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各各의 下位尺度에서 研究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問項, 5個씩을 선별하였고 豫備調査를 통해 信賴度가 낮은 問項, 우리나라의 文化的 背景에 적합하지 않는 問項, 또는 夫婦間의 自己開放 測定에 적합하지 않는 問項등은 수정되고 제거·보완하여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本 研究은 夫婦相互間의 開放程度를 알아 보는데 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各各의 配偶者에게 自身이 開放하는 程度를 알아보는 問項과 配偶者의 開放을 知覺하는 程度를 알아보는 問項으로 구성하여서 총 60問項을 사용하였다. 各 問項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에 1점,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한다”에 2점, “충분하고 상세하게 이야기 한다”에 3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自己開放程度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즉, 本 研究에서 自己開放의 넓이는 30問項이며 깊이는 1~3점의 범위로 測定되었다. 이 尺度의 信賴度는 內的合致度法(Internal Consistency Method)에 의한 信賴度係數(Cronbach's α)를 產出した 結果, 배우자에 대한 自己開放 尺度의 信賴度는 남편이 $\alpha = .926$ 이며 아내가 $\alpha = .907$ 이었고, 배우자 開放에 대한 知覺尺度의 信賴度는 남편이 $\alpha = .927$ 이었으며 아내는 $\alpha = .932$ 였다.

2) 夫婦適應

夫婦適應 測定은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를 번역하여 수정후 사용하였다. D.A.S는 4個의 下位領域, 즉 意見一致, 배우자에 대한 滿足度, 愛情表現, 同僚感 등으로 構成되어 총 32問項으로 이루어졌으나 本 研究에서는 우리

나라의 文化的 背景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問項은 일부 제거·수정하여 전체 27個의 問項으로 構成하여 사용하였다. 各 問項은 0점에서 5점의 範圍로 점수화되었다. 本 研究에서 사용된 夫婦適應尺度의 信賴度는 Cronbach의 α 계수에 의해 產出되었으며, 아내는 $\alpha = .921$ 남편은 $\alpha = .909$ 로 나타났다.

3. 測定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시 강남구 Y동, 강서구 M동, 관악구 S동, 동대문구 J동, 구로구 D동동에 거주하는 主婦들과 配偶者로 총 440名(220쌍)이었다. 質問紙의 기재는 夫婦가 각기 따로 기입하되, 서로 議論하지 않고서 기입할 것이 당부되었다.

4. 資料蒐集 및 處理

本 研究은 1987年 9月 1日 부터 9月 3日까지 3日間에 걸쳐 豫備調査를 실시한 후, 그 結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思料되는 問項은 일부 제거하고 수정·보완하여 調査用 質問紙를 完成하였으며 1987年 9月 15日에서 9月 30日까지 本調査를 실시하였다. 총 440部를 배포하여 未回收되거나 應答되지 않은 質問紙, 不實記載된 것을 제외하고 308部(154쌍)만이 分析에 사용되었다. 蒐集된 資料는 SPSS를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포, 산술평균, t-test, F-test 및 Pearson의 積률상관관계 등의 統計的 方法으로 처리하였다.

IV. 結果 및 解釋

1.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本 연구의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은 <표 1>과 같다.

2. 研究問題의 檢證

【研究問題 1】 自己開放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自己開放의 程度가 연령, 教育수준, 결혼기간, 결혼형태, 수입, 가족형태에 따라 差異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一元變量分析을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變因중 단지 남편에서만 教育水準에 따라 유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성별	부				부부			
		인	남	남	남	인	분포	N	(%)
	분포	N	(%)	N	(%)	변인	분포	N	(%)
연령	30세미만	37	(24.0)	13	(8.4)	결혼기간	1년미만	8	(5.2)
	30~39세	55	(35.7)	70	(45.5)		1~5년	44	(28.6)
	40~49세	39	(25.4)	34	(22.1)		6~10년	27	(17.5)
	50~59세	21	(13.6)	32	(20.8)		11~15년	17	(11.0)
	60세이상	2	(1.3)	5	(3.2)		16~20년	13	(8.4)
교육수준	국졸	10	(6.5)	2	(1.3)	21~25년	20	(13.0)	
	중졸	19	(12.3)	6	(3.9)	26년이상	25	(16.3)	
	고졸	84	(54.6)	59	(38.3)	수입	20만원미만	2	(1.3)
	대졸	39	(25.3)	67	(45.5)		20~29만원	6	(3.9)
	대학원졸	2	(1.3)	20	(13.0)		30~39만원	30	(19.5)
					40~49만원		20	(13.0)	
					50~69만원		33	(21.4)	
직업	전문직	4	(2.6)	16	(10.4)	70~99만원	26	(16.9)	
	관리직	6	(3.9)	34	(22.0)	100~149만원	19	(12.3)	
	사무직	5	(3.2)	37	(24.0)	150만원이상	18	(11.7)	
	숙련직	1	(0.6)	4	(2.6)	결혼형태	연애혼	104	(67.5)
	서비스직	20	(13.0)	38	(24.7)		증매혼	50	(32.5)
	비숙련직	3	(2)	3	(2.0)	가족형태	핵가족	115	(74.7)
	제조업	3	(2)	6	(3.9)		확대가족	39	(25.3)
	기타·자유업	4	(2.6)	13	(8.4)				
	무직	108	(70.1)	3	(2.0)				

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의 變因중 남편과 아내에서 전체의 自己開放 程度에는 有意度가 없었지만 自己開放의 下位領域에서는 有意性이 있었다. 즉 남편의 경우 收入에 따른 職業生活의 領域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내의 경우는 教育水準에 따른 태도 의견領域과 기호·관심領域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結婚形態에 따라 가정(또는 직업) 생활領域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참조).

남편의 教育水準에 따른 自己開放 程度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남편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아내에게 開放하는 自己開放 程度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F=3.28, p<.001$). 여기서 中卒의 경우, 自己開放 程度가 가장높게 나타난 점은 主目되는 일로 標本事例의 적은 비율에서 發生한 誤差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個人들의 性格의 특성이나 自我概念등의 媒

介變因이 作用된 것으로 思料된다.

自己開放의 各 下位領域別로 보면, 教育水準에 따라 태도와 의견, 기호와 관심, 직업생활, 성격등의 下位領域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남편은 宗教나 政府, 家族 등에 대해서 自身の 생각이나 見解를 이야기하고 職業生活에서 갖는 장점이나 능력, 目標 및 좋아하는 스포츠나 文化的 관심, 내가 갖고있는 性格의 특성을 아내에게 더 開放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와 같이 教育水準과 自己開放이 긍정적인 關係가 있다는 것은 先行研究(Hendrick, 1981)와 一致하는 結果이다.

한편, 收入에 따른 남편의 自己開放 程度를 보면, 전체적인 自己開放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自己開放의 下位領域인 職業生活 領域에서는 自己開放 程度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109, p<.05$). 收

〈표 2〉 남편과 아내의 相關변인에 따른 자기개방정도

변인		영역	태도의견	기호·관심	직생활	금전	성격	신체	전체의 자기개방
남편	교육수준	국졸 이하	1.20	1.10	1.10	1.70	1.00	1.90	1.33
		중졸	2.33	2.13	2.16	2.30	2.23	2.33	2.25
		고졸	2.03	2.08	1.90	2.04	1.93	2.16	2.03
		대학원	2.16	2.14	1.92	1.95	1.95	2.16	2.05
		F	2.33	2.17	2.19	2.22	2.15	2.11	2.22
		F	6.031***	2.360*	2.627*	1.409	3.351**	0.779	3.28***
	수입	20만원 미만	1.40	1.70	1.10	2.20	1.20	2.30	1.65
		20~29만원	2.13	2.43	2.00	2.30	2.00	2.06	2.15
		30~39만원	2.13	2.18	1.96	2.15	2.09	2.13	2.10
		40~49만원	2.16	2.01	1.78	1.86	1.91	2.10	1.97
		50~69만원	2.04	1.93	1.84	1.89	1.81	2.12	1.94
		70~99만원	2.22	2.14	2.03	2.07	2.04	2.24	2.12
		100~149만원	2.20	2.23	1.95	2.06	1.94	2.16	2.09
		F	2.14	2.25	2.26	2.07	2.09	2.26	2.17
F	1.511	1.686	2.109*	0.990	1.772	0.310	1.419		
아내	교육수준	국졸 이하	1.80	1.73	1.95	2.13	1.91	2.08	1.94
		중졸	2.11	1.90	2.11	2.08	1.97	2.08	2.04
		고졸	2.14	2.21	2.18	2.17	2.01	2.15	2.15
		대학원	2.30	2.38	2.26	2.23	2.18	2.13	2.25
		F	1.80	2.10	2.30	2.30	1.70	1.90	2.01
		F	3.058*	5.400***	1.488	0.52	1.337	1.05	1.782
	결혼태	연애혼	2.19	2.23	2.25	2.13	2.06	2.14	2.17
		중매혼	2.07	2.08	2.07	2.27	1.98	2.14	2.10
		F	1.77	1.89	2.15*	-1.55	1.08	-0.04	1.10
		F							

***P<.001, **P<.01 *P<.05

수에 따른 남편의 職業生活 領域의 自己開放 程度를 보면, 40~49만원대의 收入을 分岐點으로 하여 대체로 上·下로 갈수록 自己開放 程度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0~49만원대 以上の 收入을 가진 남편에서 收入이 많아질수록 職業生活에서 어려운점이나 귀찮은 일, 職業生活의 目標나 야망 및 自身の 強점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결등의 事項을 아내에게 더 表現하는 傾向이 있었다. 또한 40~49만원대 以下の 收入을 가진 남편들에서도 收入이 낮아져도 職業生活의 어려움을 아내에게 더 開放하는 傾向이 있었는데 이는 調査對象者의 自我概念이나 職業의 種類등 다른 諸要因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으

로 思料된다.

아내에 있어서 社會人口學的 變因과 전체의 自己 開放 程度는 유의한 差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教育水準과 自己開放의 下位領域중 태도·의견 領域과 기호·관심 領域에서 有意한 差가 있었으며 또한 結婚形態와 가정(또는 직업) 생활의 下位領域에서 유의한 差가 있었다(표 2참조). 한편, 本 研究에서 아내의 경우 調査對象者의 70%以上이 主婦였는데 그들은 戀愛婚일 때 仲媒婚일 경우보다 家庭生活의 어렵고 귀찮은 일, 즐겁고 만족한 일, 所望이나 目標 등의 여러일에 關해 남편에게 더 開放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외의 變因에서는 自己開放의 어떤 下位領域

〈표 3〉 남편과 아내의 관련변인에 따른 부부적응도

변인		영역	의견 일치	만족도	동료감	애정표현	전체의 부부적응
아내	교육수준	국졸이하	3.02	3.68	2.16	2.38	3.00
		중졸	3.46	3.57	2.44	3.22	3.34
		고졸	3.57	3.98	3.06	3.55	3.62
		대졸	3.58	3.91	3.21	3.51	3.61
		대학원졸	3.82	3.93	4.25	3.62	3.88
		F 값	2.695*	1.456	4.388***	3.305**	3.333**
남편	수입	20만원미만	2.50	3.68	1.50	1.75	2.59
		20~29만원	3.80	3.95	3.83	2.62	2.67
		30~39만원	3.60	3.94	3.45	3.02	2.61
		40~49만원	3.84	4.03	3.90	2.93	3.77
		50~69만원	3.42	3.87	3.34	2.75	3.44
		70~99만원	3.52	4.07	3.53	2.68	3.56
		100~149만원	3.66	4.22	3.72	3.23	3.78
		150만원이상	3.81	4.09	3.86	3.09	3.80
		F 값	2.572*	0.649	2.620*	1.193	2.075*

***P < .001 **P < .01 *P < .05

〈표 4〉 결혼형태에 따른 남편과 아내의 부부적응도

	남편	아내
연애혼	3.68	3.69
중매혼	3.43	3.29
t 값	2.17*	2.19*

*P < .05

에서도 有意한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研究者가 先行研究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關聯變因을 임의로 選定한데서 起因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또는 選定된 變因이 自己開放 程度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思料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후속의 研究에서 밝혀질 수 있으리라 期待한다.

【研究問題 2】 夫婦適應은 社會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研究問題 1과 마찬가지로 一元 變量分析을 하였다. 夫婦適應에 有意한 差를 나타낸 變因은 아내에 있어 教育水準과 結婚形態이며, 남편에 있어서는 收入과 結婚形態등 이었다(표 3,4 참조). 아내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夫婦適應이 높았으며 夫婦間的 의견일치나 동료감, 애정표

현등의 下位領域에서도 適應度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에게 있어서 收入은 夫婦適應度에 關聯을 갖는 變因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편은 收入이 높아질수록 夫婦適應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夫婦間的 意見一致와 愛情表現領域에서 收入이 높아질수록 夫婦適應度가 높게 나타났다.

結婚形態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夫婦適應에 關聯이 있는 變因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즉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戀愛婚일 경우가 仲媒婚일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의 경우보다 아내에서 戀愛婚일때의 夫婦適應度가 仲媒婚일때보다 훨씬 더 높았던 점이 특징적이다.

(研究問題 3-1) 남편과 아내는 自己開放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더 많은 自己開放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참조). 특히 家庭(또는 職業) 生活에서 어렵거나 귀찮은 일, 目標나 所望 및 저축이나 빚의 여부등의 金錢問題에 關해 남편에게 더 많은 自己開放을 하였다. 이는 남편과 아내의 性差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내가 더 많이 開放한다고 性差를 나타낸 先行研究(Notarius et al., 1982 ; Balswick, 1977 ; Davidson et al., 1983b)

〈표 5〉 남편과 아내의 자기개방, 배우자 개방에 대한 지각의 차이, 자기개방과 배우자 개방에 대한 지각간의 불일치 정도

영역	자기개방 정도			배우자 개방에 대한 지각의 차이			자기개방과 배우자 개방에 대한 지각간의 불일치 정도		
	남편	아내	t값	남편	아내	t값	남편	아내	t값
태도·의견	2.13	2.16	0.86	2.06	2.15	2.28*	0.01	0.01	-1.16
기호·관심	2.12	2.19	1.66	2.16	2.18	0.45	-0.04	0.01	0.84
가정(또는 직업) 생활	1.95	2.19	5.26***	2.22	2.13	-2.13*	-0.27	0.07	4.94***
금전	2.03	2.17	2.69*	2.09	2.12	0.73	-0.06	0.05	1.61
성격	1.97	2.04	1.70	2.02	2.02	-0.19	-0.05	0.02	1.53
신체	2.16	2.14	0.45	2.19	2.20	0.32	-0.03	-0.06	-0.56
전체	2.06	2.15	3.13*	2.12	2.13	0.34	-0.06	0.02	2.28*

***P<.001 *P<.05

와 一致하는 結果이다.

한편, 自己開放의 下位領域들에서 自身の 健康이나 體력 및 질병등에 대한 생각과 見解를 나타내는 身體領域을 제외하고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自己開放을 나타냈다. 그러나 統計的으로는 有意하지 않았지만 身體領域에서 아내보다 남편의 더 많은 開放은 주목되며, 이는 한 家族의 家長인 남편의 體력이나 健康狀態등에 대한 夫婦의 많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研究問題 3-2) 남편과 아내는 配偶者開放에 대한 知覺에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配偶者開放에 대한 知覺의 程度에 전체적으로 有意있는 差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태도·의견領域 및 가정(또는 직업) 생활의 下位領域에서 배우자의 開放에 대한 知覺의 程度에 의미있는 差가 있었다<표 5참조>. 즉 아내는 政治的 見解나 宗教 및 道德觀念등을 나타내는 태도·의견領域에서 남편이 더 많은 개방을 한다고 知覺하고 있었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가정(또는 직업) 생활에서 바라는 所望이나 目標 등을 나타내는 領域에서 더 많이 開放한다고 知覺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남편과 아내의 가정(또는 직업) 생활領域과 태도·의견領域에서의 配偶者 開放에 대한 知覺의 차이는 性役割에 따른 話題의 性類型化를 볼 수 있다. 즉, 남편은 아내가 家庭生活에서 느끼는 어렵고 귀찮은 일이나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 또는 家庭

生活에서 바라는 所望이나 目標등 家庭內的 일상적이고 私的인 일에서 더 많은 開放을 한다고 知覺하고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이 一般的인 宗教觀이나 道德觀念, 정부나 정책등에 關한 外的이고 話題的인 面에서 더 많은 開放을 한다고 知覺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政治的 見解등 남성다운 領域에서는 남편들이, 感情이나 일상적인 관심에서는 아내들이 더 開放함을 知覺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研究問題 3-3) 남편과 아내는 自己開放과 配偶者的 開放에 대한 知覺間的 불일치 程度에서 差異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自己開放과 配偶者的 開放에 대한 知覺間的 불일치에서 유의있는 差가 나타났다<표 5참조>. 아내는 남편이 開放함을 知覺하는 것보다 더 많은 自己開放을 남편에게 하였으며, 남편은 그와 반대로 自己開放보다는 아내의 開放을 더 知覺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家庭(또는 職業) 生活 領域에서 남편은 自己開放보다 아내의 開放을 더 많이 知覺하였으며 또한 아내는 이 領域에서 남편의 開放을 知覺한 것보다 自己開放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것은 研究問題 3-2에서 밝힌 바와 같이 性役割에 따른 話題의 類型에서 性類型化된 것을 볼 수 있다.

(研究問題 4-1) 남편의 自己開放은 아내의 夫婦適應에 相關이 있을 것이다.

〈표 6〉 남편과 아내의 자기개방 정도와 배우자의 부부적응과의 상관관계(r)

자기개방	아내의 부부적응					남편의 부부적응				
	의견일치	만족도	애정표현	동료감	총체적 부부적응	의견일치	만족도	애정표현	동료감	총체적 부부적응
태도·의견	.2603***	.1886**	.3144***	.3685***	.3308***	.3128***	.3141***	.3606***	.3653***	.4202***
기호·관심	.2306***	.2166**	.3457***	.3394***	.3262***	.2413**	.2557**	.3187***	.3731***	.3614***
직업(또는 가정) 생활	.2564***	.1193	.2565**	.3486***	.2830***	.3669***	.2868***	.2734***	.3819***	.4183***
금 전	.2284***	.1805*	.1941**	.2924***	.2724***	.2791***	.2826***	.2842***	.2226**	.3444***
성 격	.3150***	.2371***	.3398***	.4606***	.3926***	.3148***	.3259***	.3761***	.2932***	.4114***
신 체	.0953	.1481*	.1587*	.2929	.1984**	.2249**	.2620**	.2255**	.3009***	.3140***
진 체	.2988***	.2337*	.3436***	.4516***	.3872***	.3836***	.3809***	.4046***	.4243***	.4997***

***P<.005 **P<.01 P<.05

(研究問題 4-2) 아내의 자기開放은 남편의 夫婦適應에 相關이 있을 것이다.

이 두 研究問題를 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適用하였다. (研究問題 4-1)을 檢證한 결과 남편의 자기開放과 아내의 夫婦適應은 $r=.3872(p<.005)$ 로 의미있게 相關되고 있다(표 6 참조). 남편의 자기開放은 모든 下位領域에서 아내의 夫婦適應에 긍정적으로 相關되었다. 정치적 見解나 道德 및 家族 등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태도·의견領域, 남편이 좋아하는 娛樂 및 餘暇活動, 文化的인 관심등을 나타내는 기호·관심領域, 職業生活에서 바라는 所望이나 目標 및 自身の 강점이나 결점등을 나타내는 직업생활領域, 그리고 現在의 收入이나 支出, 貯蓄여부등을 나타내는 金錢領域과 自身の 부끄러거나 자랑스런 性格의 일면을 나타내는 性格의 領域등 모든 下位領域에서 남편의 자기開放 程度는 아내의 夫婦適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편의 자기開放 程度가 클수록 아내의 夫婦適應은 높았다. 또한 夫婦適應의 모든 下位領域들도 자기開放의 程度에 의미있게 相關되었으며, 특히 남편의 자기開放은 아내의 동료감領域의 夫婦適應에 높게 相關되었다($r=.4516, p<.005$). 그러므로 남편의 자기開放 程度는 아내의 夫婦適應에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

(研究問題 4-2)를 檢證한 결과 아내의 자기開放과 남편의 夫婦適應은 $r=.4997(p<.005)$ 로 높게 相關

되었다. 즉 아내의 자기開放의 모든 下位領域과 남편의 夫婦適應은 의미있게 相關되었으며, 아내의 자기開放 程度가 클수록 남편의 意見一致나 滿足度, 愛情表現, 同僚感등 모든 領域에서 夫婦適應度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자기開放의 程度도 남편의 夫婦適應度에 예측변인이라 할 수 있다.

【研究問題 5】 남편과 아내는 配偶者의 開放에 대한 知覺과 夫婦適應에 相關이 있을 것이다.

【研究問題 5】를 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였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의미있는 相關이 나타났다(표 7 참조). 아내의 경우, 남편의 開放에 대한 知覺과 夫婦適應間에는 유의있는 相關이 있었으며, 下位領域別로도 긍정적인 相關이 있었다($r=.4592, p<.005$). 남편이 開放함을 知覺하는 것은 아내에게 意見一致나 滿足感, 愛情表現, 同僚感등의 모든 領域에서 긍정적인 相關을 보였는데, 특히 아내가 남편의 開放을 知覺하는 程度는 아내에게 있어 동료감의 夫婦適應에 높은 相關을 보였다($r=.5337, p<.005$). 아내는 남편의 開放을 知覺할수록 夫婦適應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公平交換理論에 의해 夫婦適應과 자기開放을 연구한 Davidson등(1983a)의 研究와 일치한다. 또한 남편이 아내가 開放함을 知覺하는 程度는 남편 自身の 夫婦適應에 높게 相關되어 나타났다($r=.5610, p<.005$). 즉 <표 7>에 의하면 아내의 開放에 대한 知覺의 程度는 남편의 夫婦適應의 下位領域에서도

〈표 7〉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 개방에 대한 지각과 부부적응과의 상관관계(r)

배우자 개방 의 지각	아내의 부부적응					남편의 부부적응				
	의견일치	만족도	애정표현	동료감	총체적 부부적응	의견일치	만족도	애정표현	동료감	총체적 부부적응
태도·의견	.3258***	.2416**	.3022***	.3464***	.3619***	.3565***	.3773***	.4319***	.4457***	.4955***
기호·관심	.2800***	.2401**	.3651***	.4681***	.3774***	.2615**	.2926***	.3649***	.4978***	.4176***
직업(또는 가정) 생활	.2908***	.1910*	.3558***	.4078***	.3564***	.3414**	.3956***	.3568***	.4995***	.4941***
금 전	.3584***	.2574**	.2665***	.4311***	.3917***	.1968***	.3014***	.1646*	.3151***	.3119***
성 격	.3754***	.2934***	.3738***	.4979***	.4488***	.3074***	.3676***	.4733***	.5230***	.5019***
신 체	.1824*	.1970*	.1547*	.3932***	.2626***	.3018***	.3671***	.3884***	.4269***	.4594***
전 체	.3785***	.2963***	.3780***	.5337***	.4592***	.3689***	.4423***	.4518***	.5673***	.5610***

***P<.005 **P<.01 *P<.05

의미있게 相關되어 나타났으며, 아내가 開放을 한다고 知覺할수록 남편의 夫婦適應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開放에 대한 남편의 知覺程度는 同僚感領域에서 가장높게 相關되었다.

그러므로 配偶者의 開放을 知覺하는 程度는 夫婦間의 결속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V. 結論 및 提言

本 研究의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自己開放 程度는 남편의 경우 教育水準에 따라 有意한 差가 있었다. 즉 남편은 대체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아내에게 태도·의견, 기호·관심, 직업생활, 성격 등의 領域에서 開放하는 程度가 더 높았다.

둘째로, 夫婦適應에 영향을 미치는 變因은 아내의 경우 教育水準과 結婚形態이며, 남편의 경우 收入과 結婚形態등이었다. 즉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아내의 夫婦適應도가 높았으며, 收入이 많을수록 남편의 夫婦適應도가 높았고 戀愛婚일 경우에 남편과 아내 모두의 夫婦適應도가 높았다.

세째로, 전반적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더 많은 自己開放을 하였으며, 배우자의 開放에 대한 知覺에서는 전체적으로 有意있는 相關은 없었으나 아내는 태도, 의견 領域에서, 남편은 職業生活 領域에서 配偶者가

더 많이 開放한다고 知覺하였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開放을 知覺하는 것 보다 自己開放을 더 많이 하였으며 그와 반대로 남편은 自己開放보다 아내가 더 많이 開放을 한다고 知覺하였다.

네째로, 남편의 自己開放과 아내의 夫婦適應은 $r = .3872 (p < .005)$ 이며 아내의 自己開放과 남편의 夫婦適應은 $r = .4997 (p < .005)$ 의 相關關係에 있다. 즉 남편의 自己開放 程度가 클수록 아내의 夫婦適應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아내의 自己開放 程度가 클수록 남편의 夫婦適應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내에 있어서 남편의 開放에 대한 知覺과 아내의 夫婦適應은 $r = .4592 (p < .005)$ 이며, 남편에 있어서 아내의 開放에 대한 知覺과 남편의 夫婦適應은 $r = .5610 (p < .005)$ 으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배우자의 開放을 知覺할수록 夫婦適應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結論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夫婦相互間의 自己開放과 夫婦適應은 모든 下位領域에서 相關關係가 나타나고 있다. 즉 夫婦間의 自己開放을 통한 意思傳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結婚生活의 滿足이나 幸福을 가져와 夫婦適應도를 높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夫婦間의 充足하고 솔직한 自己表現은 單單한 家庭生活을 위해 夫婦서로가 가져야할 자세이며 努力해야할 측면으로 示唆하고 있다.

둘째로, 自己開放 程度는 연령이나 社會階層에 따른 고른 분포의 對象을 選定하여 研究하거나 소수의 夫婦만을 對象으로 自己開放의 時間의 量을 측정하고 기타 實驗의 研究를 補完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째로, 本 研究에서는 言語的인 自己開放만을 測定하였으나 우리나라의 文化的 背景에서는 특히 非言語的인 측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후속의 研究에서는 이점에 留意하여 研究되어지기를 바란다.

네째로, 自己開放과 배우자의 開放에 대한 知覺間의 不一致 程度와 夫婦適應과의 相關을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즉 自己가 배우자에게 開放하는 程度와 배우자로부터 받는 開放의 知覺程度와의 差異가 클수록 夫婦適應은 감소할 것이라고 豫想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不一致 程度와 夫婦適應의 相關을 보는 것은 매우 의미 깊으나 本 研究에서는 밝히지 못했다. 또한, 自己開放과 자신의 夫婦適應과의 關係를 보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思料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自己意思를 충분히 表示 하지 못하고 感情이나 意慾을 억제하는 性格의 일면은 精神生活의 質을 낮추게 할 뿐만 아니라 精神健康도 해치게 할 수 있다. 특히 夫婦間에서의 感情과 自己表現의 억제는 원만한 家庭生活를 이루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夫婦間의 적절한 自己開放의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며, 서구사회의 表現文化 背景에 맞는 尺度가 아닌 우리나라의 文化的 背景에 맞는 夫婦間의 自己開放 尺度가 다양하게 開發되어 夫婦間의 安定성과 適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권정임, “부부간의 대화를 통한 결혼생활 만족도,” 碩士學位論文, 영남대학교 대학원, 1981.
- 김인자(譯), 「適應心理」, 서울, 正民社, 1985.
- 김정산, 전영수,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인의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9집, 1983.
- 김혜선,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고찰,” 碩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 박태운,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碩士學位論文, 이화여대 대학원, 1983.
- 배기웅, “목회상담자와 일반상담자의 자기노출비교,” 碩士學位論文,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6.
- 손정애, “자기노출정보가 대인판단에 미치는 영향,” 碩士學位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1979.
- 송말희, 이정우,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 1호, 1986.
- 신성자, “기혼직업여성의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1.
- 오명숙, “결혼 적응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대 대학원, 1978.
- 유영주, 「신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 _____,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간 만족도 연구,” 「서울대 가정대논문집」 제4권, 1979.
- 유은희, “한국 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대 대학원, 1974.
- 이승진, “자기표출훈련이 자기표출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일 연구,” 碩士學位論文, 이화여대 대학원, 1986.
- 이정우, 「가정관리연구」, 서울, 수학사, 1985.
- 차재호, “국민성의 활성화,” 「한국인의 성격」, 서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4.
-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2.
- Adams, B.N., *The Family-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3th., ed., Chicago: Radn McNalley College Publishing Co., 1980.
- Balswick, J., and C.P. Avertt, “Differences in expressiveness: Gende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perceived parental expressiveness as 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9, No. 1, 1977, 121-127.
- Banikiotes, P.G., J.A. Kubinski and S.A. Pursell, “Sex role orientation, self-disclosure and gender-relate perce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8, 1981, 140-146.

- Caltabiano, M.L. and M. Smithson, "Variable affection the perception of self-disclosure appropriatenes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0, 1983, 119-128.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sh, T.F. "Self-disclosure in the acquaintance process: effect of sex physical attractiveness and approval motivation", in D.A. Taylor & M. Hinds, "disclosure reciprocity and liking as a function of gender and personalism", *Sex Roles*, Vol. 12, Nos. 11/12, 1985, 1137-1153.
- Chaikin, A.L. and V.J. Derlega, "Variables affecting the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1974, 588-593.
- Chelune, G.J., "Reactions the male and female disclosure at two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5), 1976, 1000-1003.
- Chelune, G.J., S. Skiffington and C. Williams,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observers' perceptions of self-disclos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No. 3, 1981, 599-606.
- Davidson, B., J. Balswick and C. Halverson,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A test of equit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5, No. 1, 1983(a), 93-102
- _____, "The relation between spousal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1, No. 4, 1983(b), 381-391.
- Davis, J.D., "Self-disclosure in an acquaintance exercise responsibility for level of intima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3, No. 3, 1976, 787-792.
- Derlega, V.J. and A.L. Chaikin, "Norms affecting self-disclosure in men and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4, No. 3, 1976, 376-380.
- Ehrlich, H.J. and D.G. Graeven, "Reciprocal self-disclosure in a dya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1971, 389-400.
- Falk, D.R. and P.N. Wanger, "Intimacy of self-disclosure and response processes as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5), 1985, 557-570.
- Fineberg, B.L. and J. Lowman, "Affect and status dimensions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7, No. 1, 1975, 155-159.
- Fishbein, M.J. and J.D. Laird, "Concealment and disclosure: Some effects of information control on the person who contro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1979, 114-121.
- Franco, J.N., T. Malloy and Roberto Gonzalez, "Ethnic and acculturation differences in self-disclosur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2, 1984, 21-32.
- Goodstein, L.D. and S.W. Russell, "Self-disclosure: A comparative study of reports by self and oth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4, No. 4, 1977, 365-369.
- Hansen, J.E. and W.J. Schuldt, "Marital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6, 1984, 923-926.
- Hendrick, S.S.,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0, No. 6, 1981, 1150-1159.
- Jourard, S.M., *The Transparent Self*,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71.
- _____, *Healthy Personality*, N.Y.: Macmillan

- Publishing Co., Inc., 1974.
- Jorgensen, S.R. and J.C. Gaud, "Self-disclosure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The relation examined", *Family Relations*, 29, 1980, 281-287.
- Komarovesky, M., "Patterns of self-disclosure of male undergradu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6, 1974, 677-686.
- Kohen, J.A.S., "The development of reciprocal self-disclosure in opposite sex inter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2, No. 5, 1975, 404-410.
- Lynn, S.J., "Three theories of self-disclosure ex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1978, 466-479.
- Lavin, L.O. and S.P. Lombardo, "Self-disclosure and nonintimate disclosures to parents and best friends as a functions of Bem sex role category". *Sex Roles*, Vol. 11, Nos. 7/8, 1984, 735-744.
- Lee, G.R., "Age at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A multivariate analysis with implication for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9, No. 3, 1977, 493-504.
- Lewis, R.L. and G.B. Spanier,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et. al.,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The Free Press, 1979, 268-294.
- Ludwig, D., J.N. Franco and T.E. Malloy, "Effect of reciprocity and self-monitoring on self-disclosure with a new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0, No. 6, 1986, 1077-1082.
- Myong Jin Won-Doornink, "Self-disclosure and reciprocity in conversation: A cross-national stud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8, No. 2, 1985, 97-107.
- Mcallister, H.A. and N.J. Bregman, "Set size effects in self-disclosur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2, 1984, 337-343.
- Miller, L.C., J.H. Berg and R.L. Archer, "Opners: Individuals who elicit intimate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No. 6, 1983, 1234-1244.
- Morton, T.L., "Intimacy and reciprocity of exchange: A comparison of spouse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6, No. 1, 1978, 72-81.
- Notarius, C.I. and J.S. Johnson, "Emotional expression in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2), 1982, 483-489.
- Rubin, Z., C.T. Hill, L.A. Pepolau and C.D. Schetter, "Self-disclosur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and the ethic of open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No. 2, 1980, 305-317.
- Rhyme, D., "Base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3, No. 4, 1981, 941-954.
- Snell, W.E., Jr., S.S. Belk and R.C. Hawkin II, "The masculine and feminine self-disclosure scales : The politics of masculine and feminine self-presentation", *Sex Roles*, Vol. 15, Nos. 5/6, 1986, 249-267.
- Solano, C.H., P.G. Batten and E.A. Parish, "Loneliness and pattern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3, No. 3, 1982, 524-531.
- Spanier, G.B.,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1, 1976, 15-28.